

##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본 한 교육대학 교수의 무용교수경험 탐구\*

유 미 희\*\*

- I. 서론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 IV.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론

교수로서의 삶은 녹록치 않다. 교육, 연구, 봉사라는 세 가지 임무는 슈퍼 파워를 지닌 다재 다능한 교수를 기대하는 것 같다. 교육대학에 종사하면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잘 가르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연구처럼, 또는 교육처럼, 나는 과연 그러한 인간이 되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무용은 요즘 교육의 화두로 고공행진을 하는 것 같다. 체육교과에 부속된 제도적 한계는 있으나 문화 예술교육사업으로 학교와 사회현장에 눈을 뜨게 되면서 대학의 무용교육을 재정비하고 중등무용교사 자격증제도도 힘을 얻으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당찬 포부를 펼쳐나가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소속된 무용예술강사를 접하면서 교육대학에서의 나의 교수활동은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무용예술강사의 교수활동과 많이 중첩됨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의 이상과 ‘내’가 처한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예비교사들을 교육하는 나의 교수활동이 무용교육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한 무용교수의 교수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해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무용교육의 의미와 본질적 가치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학 교수의 교수경험을 자문화기술지로 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초중고등 학교의 현장 교사나 교사들을 가르쳤던 교사교육자의 교수경험에 대한 연구(강묘숙, 2007; 고문수, 2013; 이동성, 2011 a, b; 김현정, 2014; 최희진, 2007)가 체육교육에서 행해졌다. 대학교수의 교수경험에 대한 연구는 염지숙(2003, 2007), 성열관(2005), 이동성(2011 c), 한재영(2012), 김아영·김혜나(2013), 고문수(2015) 등이 신입교수, 교사교육자, 조교수, 초임자와 경험자로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서전, 혹은

\* 본 논문은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1차 학술발표회 ‘춤에 관한 학문적 담론’에서 발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terpsi2001@ginue.ac.kr

자문화기술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무용교수경험에 관련된 연구는 박혜진(2016)이 5명의 대학 무용교수들을 대상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교수경험을 분석하였고 유미희(2012)는 현대무용교수의 직업사회화 과정을 통해 예술가 겸 교육자로서 다채로운 교육방식을 취한 교수경험을 탐색했다. 이 외에는 중등교사, 혹은 무용지도자로서의 삶과 성장과정, 혹은 그 속에서 경험한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김영미, 2010; 배체연, 2015; 이재정, 2007; 홍애령, 2013; 차지은, 2016)가 있다. 선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질적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질적 사례연구, 내러티브 탐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현정(2013)의 무용 자문화기술지 방법론 연구를 제외하면 대학무용교수의 자문화기술지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자 자신이 만들어낸 자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생애사 연구, 전기/평전, 자서전, 문화기술지가 모두 유사하지만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을 둔 자신(self)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 문화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성찰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교사교육, 교육인류학과 같은 교육학 영역에서 자문화기술지는 자기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교육활동이나 교육철학, 더 나아가서는 사회개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사용되어 왔으며 상담분야에서도 정신적 외상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 왔다.<sup>1)</sup> 무용에서의 자문화기술지적 연구는 작품창작의 과정과 경험을 언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춤의 안무, 기록에 유용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제시되는 무용수업의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업구안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교육대학 교수의 무용교수경험은 교육실천 현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초등무용교육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무용교육의 정체성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나’는 2005년도에 수도권 소재의 교육대학에 재직하기 시작하면서 10여 년간 무용수업을 담당한 여자교수이다. 나는 5세부터 무용을 배우기 시작하여 예술계열의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모대학의 무용과로 진학하였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쳤다. 강의 경력은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시작되어 학위를 마친 후 임용되기 까지 총 13년이다. 수도권과 지방 소재의 대학에서 주로 무용이론과 실기과목을 강의하였고 2년간 교육대학에서도 강의를 담당하였다. 그 외에 수도권 소재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고등학교 교사연수강사로 4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교육대학에 임용된 이후로는 초등체육과 직무연수강사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부 주관하의 교육관련 사업에서 교육위원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초등체육교과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무용교안, 그리고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

1)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pp.70-72.

젝트를 수행하면서 나는 무용교육의 학문적 체계성과 그 현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무용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무용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왔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은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글을 구성하고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며, 문화기술지적(ehtnographical) 방법이 차용되는”<sup>2)</sup> 자문화기술지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 참여자가 되어 대부분 일인칭으로 기술된다.

연구자로서의 나는 자문화기술지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005년~2015년 까지 교수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기억자료, 자기 관찰지, 반성적 저널, 예비교사 및 학생교사들의 수업 반응, 강의평가 소감문을 그 대상으로 하여 10여 년 동안의 교수여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교수경험의 사례와 특성을 James P. Spradley(1979)가 제안한 영역분석(domain analysis)과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을 토대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계속 정독하면서 자료의 내용 중 문화적 의미를 지닌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공통된 연구주제를 찾는 영역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각 경험에 관련된 내용의 소주제를 묶어주는 중간 분류주제, 그리고 그 중간주제를 포괄하는 대주제를 찾는 방법으로 분류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자로서의 나는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던컨(Duncan, 2004), Richardson, 2000)의 평가준거를 종합하여 타당도 작업을 하였다.<sup>3)</sup> 첫째,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동료 교수, 질적 연구 전문가로부터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받았다. 둘째,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내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충실히 기술하려고 노력했으며, 셋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교육기관과 인물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여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전적 이야기를 사회, 문화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나친 주관화, 혹은 자기몰입의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이면서 연구자인 나의 교수경험을 바탕으로 초등무용교육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가치를 재고해봄으로써 무용교육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의 교수경험은 교육환경, 교수방법, 교육내용에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낮선 환경, 완벽한 이방인’, 그리고 ‘체육과 예술사이, 불편한 사실’은 낮선 교육환경, 교육상황에서 가르쳤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며, ‘엄격한 훈육’, ‘친절한 교수’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행했던 교수실천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 ‘초등교사는 예술가’는 무용교육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구성하면서 무용의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무용수업의 정체성을 형

2) 앞의 글, p.55.

3) 이동성의 1인(2014), 한 초등교사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역할 갈등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교육혁신연구』 24(2), p.145.

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드러난 이야기이다.

## 1. 낯선 환경, 완벽한 이방인

교육대학이란 내게 참으로 낯선 곳이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대학인 교육대학에서 내가 담당해야 할 교과는 모두 새로운 것이었다. 교육학 전공이 아닌 나는 모든 교과내용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첫 학기에는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동료교수의 수업을 몇 회 참관하였고 이후 무용교육관련 서적, 논문,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탐독하면서 수업을 구성해 나갔다. 무용역사와 철학에 관한 이론 교과, 그리고 교양 과목으로서 무용실기 강의를 주로 담당하였던 나는 몇 달간의 여자 고등학교에서 무용교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제외하면 학교 현장,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초등예비교사들이 학습해야 할 무용교육에 대한 사전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임용 후 교육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주 1회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도록 하는 신입교수에게 주어진 책무이외에는 초등학교 환경, 수업의 진행방식, 학생들의 특성을 포함한 교육환경이나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빈약하였다. 매 수업은 내겐 무대에 오르기 전에 갖게 되는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수업을 마칠 때 마다 한 작품을 끝내고 무대 뒤를 빠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현장에서 무용을 지도할 수 있는, 즉, 예비교사로서의 학습능력뿐 아니라 지도능력까지 갖추도록 하는 일은 무용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그 실천적 지식의 이중성을 모두 담보해야 할 일이었다.

너무나 조용한 학교 분위기, 캠퍼스 안은 대부분 쥐 죽은 듯이 고요하다. 사람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 저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의 모습은 어디가고, 생동감이 왜 이리 없을까? 교육대학이라서 그런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과연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껏 내가 연구해 온 것들은 다 쓸모 없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2005. 03. 28. 자기 관찰지)

막연한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은 이전의 교육환경과 전혀 다른 현실에 처한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했고 내게 부족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나는 수도권 소재의 모 초등학교에서 1년간 매주 1회 방문하여 무용수업을 진행하였다. 초등학교의 학습 환경, 아동들의 일반적인 특성,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의 적절성 등 전반적인 초등 교육의 상황을 감지하면서 이후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교육적 실천이 가능한 무용학 연구로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교육대학 교수로서의 필수적인 현장적 지식을 넓혀 가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존의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을 실천해 나갔다.

## 2. 체육과 예술사이, 불편한 사실

나는 체육교육과에 소속되어 있다. 한 명의 여교수를 제외하면 모든 교수들이 체육을 담당한 남자교수이다. 교육과정에 있어 무용은 초등교육에서 다섯 개 영역 중 하나로, ‘표현활동’이라는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교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A 교육대학에 편제된 무용관련

교과는 2010년 교육과정에서는 총 144이상/체육27(32)/무용9(12),<sup>4)</sup> 2013년 교육과정에서는 144이상/체육27(32)/무용9(12), 그리고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142이상/체육24(36)/무용8(8)이다. 이중 공통 필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무용교과는 ‘신체표현활동’이라는 한 개의 강좌이다. 수차례의 교육과정의 개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무용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예술 및 체육’이나 ‘기초역량’중 하나로 구색 맞추기에 필요한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교과라는 것이었다.

“교과과정과 비 교과과정의 균형을 바탕으로 학습 및 교직 수행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전문역량을 신장 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인성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sup>5)</sup> 교육대학 교육과정의 목표를 염두 해 보면 무용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4년 동안 한 학기에 수강한 지식과 체험을 토대로 무용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과도한 학습 분량과 과제, 평가준비시간의 부족은 자주 제기된 이슈였고 ‘표현활동’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15주의 교육내용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현실적 한계는 무용교육에 대한 신념과 실천사이의 크나큰 간극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 과제량이나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의 양이 많은 강의였다(2006년도 2학기, 2011년도 2학기 강의평가소감문).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계획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한 활동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또한 일주일 만에 조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조금 버거웠다. 열심히 연습해도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연습한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웠다 ... 이 강의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과제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2013년 1학기 강의평가소감문).

‘신체표현활동’의 강의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작무용과 민속무용이 그것인데 창작무용에서는 움직임표현, 리듬표현, 주제표현을, 민속무용에서는 한국민속춤과 외국민속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움직임표현, 리듬표현과 주제표현에 관련된 내용은 ‘창작무용’으로, 민속표현에 관련된 내용은 ‘민속무용’이라는 분리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학생들이 매 학년마다 최소한 한 학기정도 무용수업을 경험할 수 있다면 표현활동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을 갖출 수 있지만 이는 기존 체육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이유로 교과목 개정에서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체육교과서 집필은 2012년도에 시작해서 4년간 진행되어 왔다. 교육대학 교수중 대다수는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을 지침으로 한 표현활동 집필은 무용수업의 계획과 목표에 적절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었으며 이는 체육교과로서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한 재고를 통해 나의 무용수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집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선 표현활동에 제시된 신체활동가치에 대한 불분명한 개념을 들 수 있다. 3-4학년은 ‘신체인식’과 ‘신체 적응력’<sup>6)</sup>이라는 가치를 습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한, 두 줄 정도의 간략한 서술로만 이루어져 그 가치를 구현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체활동예시에서 리듬표

4) 숫자는 학점, ( )는 시간을 의미함.

5) 2015 교육과정 목표, p.1, <<http://www.ginue.ac.kr>>.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호(별책11), 『체육과 교육과정』, p.14.

현의 상당한 부분이 공, 곤봉, 리본을 이용한 체조와 음악줄넘기가 포함되어 있어 체육의 기능적 특성에 집중됨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구성이 과연 표현활동의 가치 구현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했다. 따라서 표현활동의 내용을 편성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적정지침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검정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학생, 교사, 사회라는 다양한 수요자층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창의력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다양성 보다는 아이디어나 편집진의 기술력에 따라 교과서가 선택되어지는 우려를 갖게 되었다. 배종희와 추갑식(2013)은 교과서 집필과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목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갖게 하는 것으로 교과서는 언제나 아동의 발달과업에 관심을 둔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조로 삼아야 하며 지배 권력의 이해득실과 국가통치 편익이 우선시 되는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체활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신체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표현활동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교과서와 차별성을 갖기 어려웠고 움직임 표현, 리듬표현, 민속표현, 그리고 주제표현이라는 내용요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심미적 표현능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 역시 제한된 분량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과서 집필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무용지식을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교육으로 그간 개발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집약적으로 펼쳐낼 수 있는 장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판에 박힌 교육내용과 수행평가, 그리고 체조와 같은 운동경기에서 필수적으로 제시되는 기본동작에 대한 요구로 체육과 다른 무용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는데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느꼈고 이러한 문제로 편 집진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과정은 교육지침에 타협해야 끝나게 되는데...(2012년 11월 22일 자기관찰지)

### 3. 엄격한 훈육, 친절한 교수

10여 년 동안 개설된 무용교과는 ‘신체표현활동’, ‘포크댄스’, ‘체육실기(무용)’, ‘세계의 춤’, ‘춤 장단’, ‘라인댄스’, 그리고 심화과목으로 ‘초등무용교육’, ‘초등무용교육II’이다. ‘신체표현활동’과 심화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는 선택교과이다. ‘신체표현활동’을 통해 나는 연 6~7개 학과의 학생들을 만났으며 남녀 학생의 비율은 3:7, 또는 2:8 정도이다. 매 학기 첫 수업에서 나는 교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왔다. 출석확인, 교과안내, 평가와 과제물, 그리고 수업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모든 수업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가능한 한 통일된 기준과 평가방식을 적용하였고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결사항이었다. 수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창작표현은 핵심개념을 이해한 후 연상과 상상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모범답안보다는 창의적인 발상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표현활동에서 나는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수업의 집중된 분위기 형성을 위해 시간엄수와 복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강조하였다.

출결의 융통성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 여학생들에게 스타킹을 벗지 않거나, 귀고리를 빼지 않거나, 머리를 묶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감점을 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중 고등학생도 아닌 대학생의 신체적 자유까지 다소 그렇게 억제하면서 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2006년 1학기 강의평가소감문).

왜 이렇게 떠드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학생인데 무용실만 들어서면 아이들은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것 같다. 천장 끝까지 몸을 날리는 아이들, 큰 소리로 이야기 하며 떠드는 아이들 ... 긴 머리를 날리면서 탈춤을 추는 아이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야단쳤다.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풀어헤치고 춤을 출수 있냐고 ...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 역시 아이들을 이해 할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난 후 야단 친 아이들을 연구실로 불러 조용히 타일렀다. 처음엔 고개를 꺾듯이 든 채 꼼짝 않던 여학생들의 표정이 차츰 부드럽게 바뀌었다(2006년도 9월 11일 자기관찰지).

어려서부터 엄격한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자란 나에게는 복장을 단정히 하지 않고 무용 수업에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깔끔한 머리모양, 움직임에 방해하지 않는 상하의, 그리고 무용슈즈는 아니더라도 실내에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부드러운 실내화 정도는 예비 교사들이 숙지해야 할 교육의 한 형태로 생각하였다. 물론 이전에 교양실기로 무용 강의를 담당한 적이 있었지만 무용실이라는 개방된 공간이 교육대학 학생들에게는 유일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나의 요구가 번거로운 것이었다.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는 예술가교수의 과도한 훈육은 교육현장에서 예술을 전 인격적으로 확인하는 자율적인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며, 예술 그 자체의 수준과는 별개의 실천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점<sup>7)</sup>을 간과하는데서 발생하였고 나 역시 그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내 강의는 학생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닌 '안전할 권리' 라는 것이고 시간엄수는 '나'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생각하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사안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체육을 비롯한 실기수업의 경우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단정한 복장을 갖추지 않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활동에서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고 이때부터 복장에 대한 학생들의 불평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무용 수업은 매우 익숙하지 않은 교과중 하나이다. 체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대부분 구기활동으로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나 무용관련 수업은 그렇지 않으며, 드물게 각 학과에서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입시경쟁으로 인한 주지교과 위주의 수업은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가치를 저하시키고 몸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마저 갖게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두려워했다면 나에겐 이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큰 관건이었다. 20대 후반에 시작된 일반인 수강자들과의 첫 대면, 즉, B 대학에서의 8년간의 평생교육원 강의는 예비교사를 위한 강의설계에 큰 밑바탕이 되었다. 가장 전문화된 지식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또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경험이었고 이는 무용에 대한 나의 전반적인 지식을 더욱더 명료하게 할 때만 가능한 것이었다.

춤의 기본인 자세에서부터 저희의 수준에 맞도록 조정된 스포츠 댄스까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초등학생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의 기초를 다지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7) 유미희(2012), 현대무용교수의 직업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6(4), p.68.

(2008년도 1학기 강의평가소감문).

신체표현에 대해서는 몸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걱정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면서 배려해 주셔서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몸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부담감은 항상 있었지만 그 방법이 즐겁고 이해하기 쉬워서 참 좋았다... 바른자세와 같은 기본적인 소양부터 소고춤 같은 무용적인 심화과정을 두루 다루는 수업이라 좋았다. 교수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함께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2013년도 1학기 강의평가소감문).

나는 춤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과 집중에서 출발하도록 하였다. 자신과 타인의 움직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몸의 표정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좀 더 확장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표현요소에서 찾도록 하였다. 춤이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 특성이 있듯이 개개인이 다른 움직임 특성을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민속춤 지도에 있어서도 “동작익히기 위주의 지식과 기능적인 면을 습득하는 것”<sup>8)</sup>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의 역사, 사회, 문화,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춤의 구조와 특질이 인문학적 요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였다. 즉, 움직임, 시간, 공간 등 표현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 나라의 움직임의 스타일이 민족적 특성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유추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춤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고 춤추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조금씩 해소하기 시작했다.

#### 4.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 초등교사는 예술가

어느 순간부터 예비교사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치기 보다는 춤을 삶의 일부로 즐기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법, 내가 놀 수 있는 끼리 중 하나로, 내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레퍼토리중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자신이 익숙해지고 즐길 수 있으면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예비교사들은 아동들에게 보다 더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무용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2011년 11월 3일 자기성찰지).

초등학교 교사에게 있어 무용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소질과 적성의 부족이 40%, 자료의 부재가 37%, 그리고 교사교육에서 무용교육 경험의 부재가 17%로 나타났다<sup>9)</sup>. 송미숙(2015)은 예비초등교사의 무용수업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목적의 부재, 즐거움, 전문성, 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쉽고 즐거운 수업, 배움이 있는 수업목표의 탐색, 공유해야 할 학습활동의 구현, 다양한 무용학습의 개발을 들고 있다. 과거 무용경험이 빈약하고 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예비교사들에게 즐겁고 재미있는 무용수업의 참여는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 자신감, 그리고 무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몸을 쓰는 것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지만, 워낙 재밌고 흥겹게 가르쳐주셔서 어려움보다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교단에 섰을 때 교수님을 본받아 학생들에게 즐거운 수업을 해 줄

8) 유미희(2014), 초·중등 체육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무용교육 내용분석, 『무용예술학연구』 46(1), p.61.

9) 황숙영, 손천택(2004), 초등예비교사의 교육대학 무용수업에 대한 인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2), p.143.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2013년도 2학기 강의평가소감문).

몸치인 나도 즐길 수 있는 수업이었다. 생각한 바를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다(2014년도 1학기 강의평가소감문).

여러 가지 무용에 대해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여러 가지 실기 과제를 수행하면서 무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수업이었습니다 ... 다양한 종류의 무용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직접 춤을 춰보기도 하면서 체육실기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고 무용공연도 직접 보면서 색다른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다 ... 한 학기 동안 몸을 신나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강의였습니다(2012년 1학기 강의평가소감문).

나는 매 수업 때마다 공연(performance)을 한다. 수업은 나의 공연물(performance)이다. 나는 일정한 주제에 따라 무대를 구상한다. 솔로, 이인무, 삼인무, 때로는 군무로 움직임을 탐색하고 각각의 장면 전체를 하나로 통일되도록 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업현장에서 나는 이러한 일련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연출자임과 동시에 관객이 되어 때로는 연구자로서 때로는 교수로서 다중적인 역할을 하였다. 창작, 발표, 감상이라는 예술의 전 과정은 교육의 과정과 일맥상통 한다. 주어진 학습개념을 인지시키고 새로운 방법으로 구상하여 지도하며 발표와 감상을 통해 그 반응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감성을 읽어낼 수 있는 직관력,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즉흥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가 많이 요구된다. 이러한 자질은 특히 초등교사에게 필요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비교사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고 그들의 얼굴, 음색, 몸짓 등 몸 전체에서 우러나오는 표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비교사에게 무용이라는 교과는 춤을 잘 추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나'자신의 발견과 이해를 통해 아이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데 있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자신이 우스운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이다. 예비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면 왜 움직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 (2014년 3월5일 자기관찰지)

몸치인 나도 즐길 수 있는 수업이었다. 생각한 바를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다 ... 교육대학 남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용 수업 같은 다소 여성적인 수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신체의 선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실제로 무용공연을 감상했을 때는 무용수의 공간 활용을 나도 모르게 보고 있음에 깜짝 놀랐다(2014년 1학기 강의평가소감문).

신체표현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수업을 함으로써 교사가 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자질을 기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 신체표현이 초등학생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수업 때 자주 설명해 주셔서 교사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첫 수업 때 '초등교사는 예술가다'라고 말씀 하는 신 것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2014년도 1학기 강의평가 결과)

## IV. 결론 및 시사점

나는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들에게 무용을 가르쳤던 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이야기 하였다. 10년 동안의 교수예정 속에서 교수경험과 관련된 기억자료, 자기 관찰지, 반성적 저널, 학생들의 강의평가 소감문을 대상으로 Spradley의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학이라는 교수환경은 내게는 매우 낯선 곳이었으며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새로운 전문적 지식의 전경에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일종의 혼란스러움과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이 누구인지, 교수자로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교수자로서 지니고 있는 기존 입장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며 '앞'에 대한 불확실함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의 교수 실천을 생각해 보고 되돌아보며 점차 교수실천의 방향을 바꾸어<sup>10)</sup>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내게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수업은 모든 무용지식을 교육적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했으며 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에 대한 실천적 지식, 이 두 가지는 모두 내가 풀어야 할 과제였다.

둘째, 체육교육과에 재직하고 있는 나는 체육과 예술의 모호한 경계에 걸쳐있는 무용교과의 불편한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음악교과나 미술교과와는 다르게 체육과의 교육과정으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무용은 교육대학 체제 안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이나 기능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시수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초등예비교사들의 무용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는 교과서 구성 비율이 그 이유 중 하나인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표현활동 영역비중을 평균 17-18%<sup>11)</sup> 정도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행대로 이루어진 체육교과서의 일반적 비율을 근거로 한 것이나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어디에도 영역간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연 204시수'<sup>12)</sup> 내에서 영역 간 비중과 내용요소 간 비중은 융통성 있게 설정하고 창의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표현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영역 배분에 있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표현활동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교육대학의 교과목 편성에 있어서도 표현활동에 대한 지식과

10) 엄지숙(2007),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교수경험에 대한 성찰, 『한국교원교육연구』, Vol . 24, No. 2, pp. 251-252.

11) 2016년 현재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 출판사별 표현 영역 비중

3학년 체육 교과서 출판사별 표현 영역 비중(움직임 표현)

출판사	금성 출판사	지학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천재 교과서	천재문화	평균
비율	18.9%	16%	17.7%	18.2%	19.5%	17.2%	17.6%

4학년 체육 교과서 출판사별 표현 영역 비중(리듬 표현)

출판사	금성 출판사	지학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천재 교과서	천재문화	평균
비율	20.9%	17%	17.7%	19.5%	18.2%	20%	19%

5학년 체육 교과서 출판사별 표현 영역 비중(민속 표현)

출판사	금성 출판사	천재 교과서	비상교육	교학사	평균
비율	17.4%	19.5	17.7%	17.2%	17.6%

6학년 체육 교과서 출판사별 표현 영역 비중(주제 표현)

출판사	금성 출판사	천재 교과서	비상교육	교학사	평균
비율	15.4%	18.2%	17.9%	17.2%	17.2%

1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1), 『초·중등교육과정총론』, p. 4.

경험을 예비교사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각 학년별로 공통교과의 형태로 무용교과가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무용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무용교과 편성이 향후 궁극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무용 수업에 적용한 엄격한 훈육방식은 예술가 교수로서 도제식 교육에 익숙한 내게 교육현장에서 예술이 갖는 실천적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을 하게 했다. 이후 나는 새롭고 낯선 무용지식에 대한 안내자로서 예비교사들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몸의 기본적 체계에서부터 심화된 형태의 무용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인문학적 탐구와 춤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의 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갔다.

넷째, 즐거움을 주는 무용수업은 예비교사들에게 몸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무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무용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또한 내가 수업을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창의력, 상상력, 즉흥력 등이 필요한 창작과정과 다름 아니며, 이는 초등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을 알게 되었다. 초등예비교사에게 무용교육은 몸으로 말하는 아이들의 소리에서 다양한 감성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나와 ‘우리’가 하나로 관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교육대학에서의 나의 교수경험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춤을 추는지’에 집중했던 이전의 나의 시선과 관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움직이는지’로 전환시켰으며 무용의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추구하는 도덕적 덕성은 춤추는 자의 덕성이다”라고 하는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외침은 몸에 대한 관심과 가치에 주목하게 한다. 니체는 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이성이라고 했으며 내 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속의 자연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삶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였다. 몸의 소중함에 귀 기울이고 몸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바로 볼 줄 아는, 이를 다스리고 제어함으로써 성격과 인성이 형성<sup>13)</sup>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용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이외에도 초중고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교수경험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연구함으로써 무용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무용교육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문화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13) 이진우(2014). 니체7강 <운명을 사랑하라>. EBS 인문학 특강. 2014.8.18 방영.

##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_\_\_\_\_(별책11). 『체육과 교육과정』.
- 강묘숙(2007). 초등 교사의 표현활동에 관한 실천적 지식 형성의 생애사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미(2010).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좋은 무용수업.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정(2014). 무용전공 여성체육교사로서의 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진(2016). 대학 무용교수의 무용 가르치기.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체연(2015). 무용학원 강사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이재정(2007). 여가무용지도자의 교수방법 형성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지은(2016). 특수무용교사가 체험하는 학생과의 소통과정.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애령(2013). 뛰어난 발레교육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문수(2013). 한 초등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반성과 신념의 형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3): 53-74.
- \_\_\_\_\_(2015). 대학초임교수의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체육교육에 관한 성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0(3): 65-83.
- 고현정(2013). 자문화기술지의 학문적 적용과정과 무용 자문화기술지 방법론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4(1): 35-53.
- 김아영, 김혜나(2013). 대학에서의 교수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학연구』, 19(1): 139-163.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 연구』, 55-79.
- 배중희, 추갑식(2013). 초등체육교과서집필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9(3): 11-14.
- 송미숙(2015). 예비초등교사의 무용수업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 『우리춤과 과학기술』, 28: 53-69.
- 염지숙(2003). 신입교수의 일과 삶: 교수되기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8(2): 135-160.
- 염지숙, Mitton-Kukner, J., & Li, Y. (2007).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교수경험에 대한 성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4(2): 243-260.
- 유미희(2012). 현대무용교수의 직업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6(4): 53-73.
- \_\_\_\_\_(2014). 초·중등 체육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무용교육 내용분석. 『무용예술학연구』, 46(1): 47-66.
- 이동성(2011 a).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의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초등교육연구』, 24(4): 45-70.
- \_\_\_\_\_(2011 b). 한 교사 연구자의 변환적인 역할과 관점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4(2): 61-90.

- \_\_\_\_\_(2011 c). 한 교사교육자의 교수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4(2): 31-67.
- 최희진(2007). 대학체육교육자의 삶과 교육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중등교육연구』, 55(2): 59-79.
- 한재영(2012). 한 사범대학 과학 교육 조교수의 삶에 대한 자서전적 연구. 『과학교육연구지』, 36(1): 1-13.
- 황숙영, 손천택(2004). 초등예비교사의 교육대학 무용수업에 대한 인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2): 143-158.
- 이진우(2014). 니체 7강 「운명을 사랑하라」. EBS 인문학 특강. 2014.8.18 방영.

논문투고일 2016. 5. 4.  
심사일 2016. 5. 22.  
심사완료일 2016. 5. 29.

## A Study on a Teachers' College Professor's Dance Teaching Experience Seen through Auto-ethnography

Yoo, Mi-Hee

Professor of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narrated my experience of teaching prospective teachers at a teachers' college through my auto-ethnography. This study conducted domain analysis and taxonomic analysis proposed by Spradley on memory records, self-monitoring inventory, reflective journals, and student course evaluation impressions in my 10 year career of being a professor,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eaching environment of a teachers' college was an unknown world to me, and I was a complete alien. Second, my working for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reconfirmed that there was an uncomfortable conflict between physical education and art. Third, the rigid training methods implemented in the dance class made me reflect on what the practical knowledge of art was on the education spot to me who was accustomed to apprentice education as an art professor. Fourth, it is found that the dance class giving fun was a new experience to perspective teachers by reminding them of interests in their body and perception of dance, and that elementary perspective teachers learned artistic creativity and imagination as an important quality.

Keywords: Dance education(무용교육), Dance teaching experience(무용교수경험), Dance professor(무용교수), Auto-ethnography(자문화기술지), Perspective teacher(예비교사)